

성령의 열매(6) 자비 – 자기연민을 뛰어넘어

마태복음 25 장 31-36 절

1. 가정예배에서 있었던 일

언젠가 다섯 번째 주일을 앞둔 토요일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제가 마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당시 탈레반에 의해 고통받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용기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우리가 꼭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도울 필요가 있는 거야? 그 사람들 20년을 외국에서 도와주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면서. 그렇게 노력도 하지 않고 별로 기대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꼭 도와야 하는 거야?”

아들의 갑작스런 질문에 제 나름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 대답의 핵심이 오늘 공부할 주제 “자비”입니다.

2. 자비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자비란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종종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6. 자비 - 자기연민을 뛰어넘어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 속에 담긴 "자비"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를 위해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는 갈라디아서 5 장 22 절을 다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 구절에서 "자비"는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로 언급됩니다. 이것은 헬라어 "크레스토테스"(chrestotes)를 번역한 것입니다. 현대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개정판은 "자비"가 아닌 "친절"이라는 단어로 옮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 역시 헬라어 "크레스토테스"를 "kindness"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자비와 친절함 중에서 어떤 번역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어사전은 자비를 가리켜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이라고 설명합니다.

불교에서는 "중생들에게 즐거움과 복을 주고, 고통과 괴로움을 없게 함"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비는 다소 추상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이에 반해, 헬라어 "크레스토테스"는 훨씬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저는 그런 이유로 개역개정성경의 '자비'라는 번역보다 친절함 혹은 인자함이라는 번역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함이나 인자함이 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성경공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자비"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성령의 열매로 제시된 자비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비란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동 혹은 그런 행동을 취하려는 태도

이 정의에서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비는 구체적인 행동이며

동시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비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이나 미소와 같은 단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허나 더 중요한 의미에서, 자비란 자신에게 불편하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 기꺼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 장 4 절 말씀 앞부분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구절에서 온유함이란 “크레스토테스”와 동일한 어근의 헬라어입니다. 즉 자비 혹은 친절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사랑을 가리켜 무엇보다 인내와 자비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잘 견디는 것과 친절히 베푸는 것을 함께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자비는 인내와 짝을 이루어 사랑을 구체화합니다.

3. 하나님의 자비하심 – 헤세드

자!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자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사람의 자비보다 훨씬 크고 우선합니다. 특히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헤세드”라는 아름다운 단어에 담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36 편이 그렇습니다. 1 절에서 26 절까지 반복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1 절과 2 절만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6. 자비 - 자기연민을 뛰어넘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지요.

시편 23 편 6 절도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헤세드)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홍해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두 발로 걸어 다닌 자비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인자하셨습니다.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베데스다 연못가의 38 년된 병자에게,

군중 속에서 소리를 지르던 맹인 바디매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던 어린 아이들에게,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던 키 작은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도 시편 136 편의 시인처럼 예수님의 자비를 노래합니다.

6. 자비 - 자기연민을 뛰어넘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다.”

“그 헤세드가 영원함이다.”

4. 우리가 실천해야 할 자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본보기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마땅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헌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곤경에 처한 누군가를 도울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실천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룻기를 보십시오. 룻기 1 장 1 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룻기 바로 앞에 나오는 사사기 21 장 25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 그것이 사사 시대입니다.

헌데 이런 시대에도 **보아스와 룻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대신,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택합니다.** 즉, 룻과 보아스는 당대의 문화에서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일반적인 기대를 뛰어넘는 선택을 합니다. 큰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곤경에 처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작정합니다. 정확히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6. 자비 - 자기연민을 뛰어넘어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자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 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구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등골이 오싹합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오른편에 한 무리를 모으시고,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복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도대체 이들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것입니까? 35 절과 36 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혈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잘 섬겼나 봅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혈벗으시고, 병들고 옥에 갇히셨을 때, 이들은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충격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는지 묻습니다.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리고, 물을 드리고, 옷을 드리고, 간호를 해드리고, 돌봐드렸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0 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곤경에 처한 자를 말합니다. 병들고,

6. 자비 - 자기연민을 뛰어넘어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감옥에 갇힌 자들, **그들을 돌본 것이 주님을 돌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실천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헤세드를 실천하면, 그것은 곧 우리 주님께 한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마지막 날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5. 왜 어려운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기서 우리는 자비의 반대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자비의 실천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자기 연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 장에 잘 나오듯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기인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을 때, **그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벌어집니다.** 일종의 소외 현상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소외**라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말이지요.

셋째는 이웃과 자연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사회적 소외 혹은 관계적 소외**입니다.

6. 자비 - 자기연민을 뛰어넘어

죄로 인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영적인 소외, 심리적 소외, 그리고 사회적 소외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복은 영적인 차원에서 먼저 일어나고, 이어서 심리적 차원으로 그리고 사회적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서 때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심리적 회복이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회복은 맛보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일종의 자기 연민**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세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즉, 자비를 실천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자비의 위조품을 생각해봅시다.

자비처럼 보이는데 진짜 자비의 실천이 아닌 것, **그게 뭘까요? 위선입니다. 혹은 외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 장 3 절과 4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구제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건강한 자비의 실천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남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자기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비의 실천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

6. 자비 - 자기연민을 뛰어넘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유명세를 뽐내기 위해,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자비의 실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비의 유사품을 위선 혹은 외식 혹은 자기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6. 자비를 연습함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연습하면 좋을까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는 “카페 소스페소”(caffé sospeso)라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면, 그 기념으로 커피 두 잔의 값을 지불하고, 한 잔만 가져간답니다. 그러면 남은 한 잔은 누군가에게 공짜로 제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임의의 작은 실천, 이걸 영어로는 random act of kindness**라고 부르더군요. 임의로 친절을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비를 훈련하는 것은 뭔가 엄청 큰 일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을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가 상추를 팔고 계십니다. 한 바구니에 4천원이랍니다. 그러면 5천원 드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 **작은 친절의 연습을 통해 자비의 성품이 길러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달라고 기도하면 자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작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